

劇團 부극劇場 개관 1 주년 특별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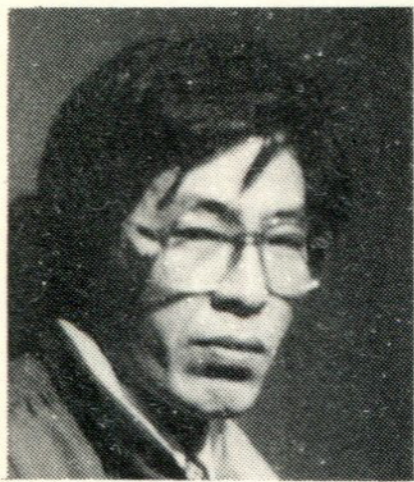
# 환도와 리스



원작 : F. 아라발 / 번역 : 김미라 / 연출·제작 : 이성규 / 기획 : 조문선·이용전

85.4.19~21 시민회관소극장

## ▶ 대표인사



극단대표 이 성 규  
釜山産 / 고도를 기다리며

극단“부두극장”이 이번작품으로 3회째의 공연을 올리게 된다.

영주동에 조그만 창고를 임대해서 단원들이 직접 뛰드려 맞춘 우리의 전용소극장이 문을 연지도 벌써 1년,

그래서 이번공연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축공연이며 극단 부두의 첫 나들이 공연이기도 하다.

1, 2회째는 우리의 전용소극장에서 주로 1~2명의 배우가 하는 1시간 30분정도의 짧은 연극이었지만 신선한 맛을 관객들에게 던져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단원들도 꽤 늘었으며 새로 입단한 단원들도 무언가 의욕을 가지고 연극과 자신에 대해 조심스럽게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것 같다. 쉽게, 안일하게 입단하려고 했던 몇몇 단원들은 연극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무게에 스스로 놀라 혹은 주저앉기도 했다. 그리고 극장에는 많은 손님(관객과 연극인)들이 다녀간다. 그들은 많은 좋은 충고와 그들의 기대며 의견을 아끼지 않는다.

그것은 극단 부두극장이 부산유일의 창고식 전용 소극장을 갖춘 극단이라 해서 만은 아니다.

그들은 연극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얘기들을 한다. 그리고 극단 부두의 이름이 무엇인가 좋은 의미, 참된의미

를 찾아내고 싶어한다.

그들은 기존의 연극에 이미 식상한 편이지만 새로운 연극, 좋은연극, 감동적인 연극에는 언제든지 박수를 보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마 예술 애호가들인가 싶다.

그들의 얘기는 대체적으로 이렇다.

1) 부두란 바로 부산문화의 현장이 살아 숨쉬고 있는 바다와 노동과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2) 연극은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하므로 극단 부두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항도 부산 바로 이 현장에서 생생한 우리의 얘기를 할수있는 극단이어야 한다.

3) 서울 연극의 아류가 아닌 문화의 지방분권화를 이룰수 있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목소리로 이야기 해야한다.

4) 폐쇄된 극단이 아닌 열린 극단으로써 관객들과 언제든지 대화하고 그들의 얘기를 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극단이어야 한다.

6) 새로운 인재를 늘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하며 다른 의견과도 의연히 대화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7) 좀더 많은 선전과 홍보를 통해서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킬수 있었으면 좋겠다.

8) 전용소극장에서 좋은 작품을 레퍼토리화 해서 장기공연을 통해 예술적 완성을 기해야 한다.

9) 세미나, work-shop등을 통해서 단원들의 자질 향상을 꾀할수 있는 여러가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0) 좀더 쉬운 연극 같이 동참할수 있는 연극, 재미있는 연극을 해야 한다.

극단 부두는 이러한 모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는 기본 명제를 결코 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혀두고 싶다.

비록 창단 1년의 부끄러운 신인 이지만 이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극단 부두가 되게하기 위해서 자! 단원들이여 분투를!

## ▶ 연출의변

작품을 처음 받았을 때 제일먼저 떠오른 문제는 이 작품의 큰 줄기인 “환도와 리스의 사랑”의 문제와 세사람의 방관자(미따로, 나뭇, 또소)가 그들의 목적지 라고 하는 “딸르”의 주제를 어떻게 한 울타리 안에 응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사랑과 알수 없는 곳 딸르-

사랑을 하면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환도와 리스,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고 마는 그들의 아이러니한 비극은, 딸르에 가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놓여진 절대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바늘구멍만한 이치나 따지면서 그들의 시간을 버려두고 있는 세사람의 괴기하고 우스꽝스런 희극과 만나게 된다.

리스에 대한 환도의 사랑이란 내제된 성적도착과 유희물으로써 리스를 완전히 자기것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목적지 딸르에 가기위한 세사람의 태도는 공허한 주장과 비타협적인 논리로 해서 극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목적지 딸르는 결국 도달하지 못할 무목적의 목적임을 알게 된다.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환도와 리스의 헛된 열정과 도착하지 못하는 딸르에 헛된 망상에 빠져있는 세사람의 모습은 부조리로 규정된 세계와 人生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절망한다.

그러면 그들의 절망을 숙명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시간과 죽음 그리고 영원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열정적 사랑은 그만큼 더 생명을 소지하는 것이고, 헛된 논리와 주장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과 순환의 아이러니를 보면서 우리는 일말의 공포를 느낀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공포는 人間의 물질화와 기계화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공포 일것이다.

작품의 내재율인 이 문제를 끄집어 내기 위해 아라발의 인 몇가지 儀式的인 방법을 써 보았다.

극장에 들어서서는 관객은 무대 중앙에 실루엣으로 위치한 하나의 인형과, 어두운 극장 내부에 쫓겨 있는 촛불을 보게 될것이다.

관객은 엄숙하게 차려진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 일수도 있고 미로를 헤메는 5사람의 무대위의 인물과 같이 미로를 헤매는 사람일수도 있다.

공연이 끝난후 곳곳에 널려있는 인간의 물질화에 대한 공포를 실루엣으로 처리된 인형을 통하여 찾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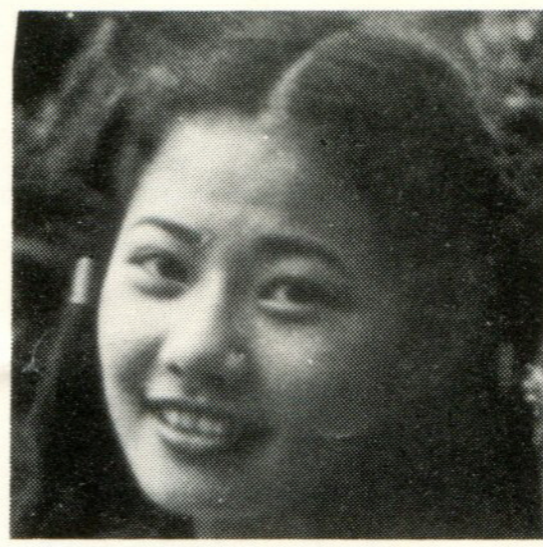
아이러니와 공포의 제전, 바로 이번공연에서 의도하는 우리의 목적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곳곳히 참아내 준 우리 단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물질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우선박 조소장님, 김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도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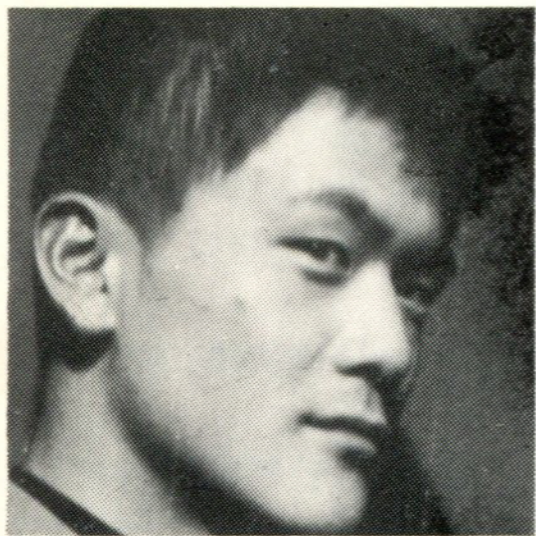
환도 : 김 영 구  
釜山産 / 건축사와이씨리



리스 : 유 성 희  
釜山産 / 환도와리스



나물 : 김 경 수  
서울産 / 호선생전외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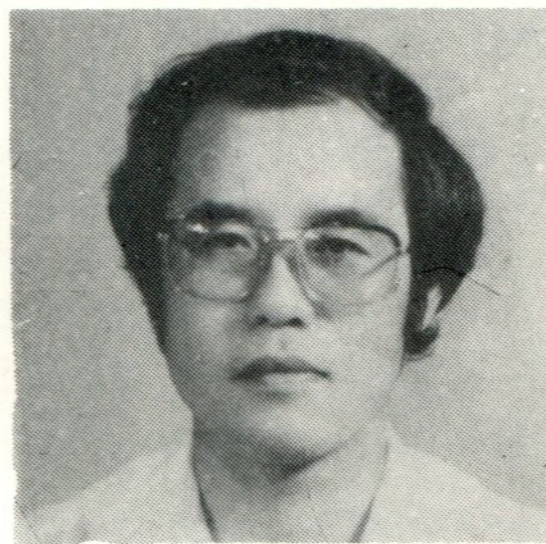


또소 : 김 광 보  
釜山産 / 대머리여가수외다수



미따로 : 조 문 선  
釜山産 / 게르니까외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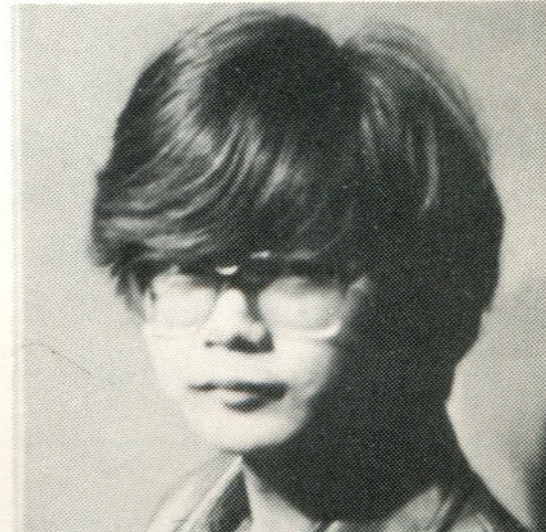
# STAFF



무대 감독 / 권 기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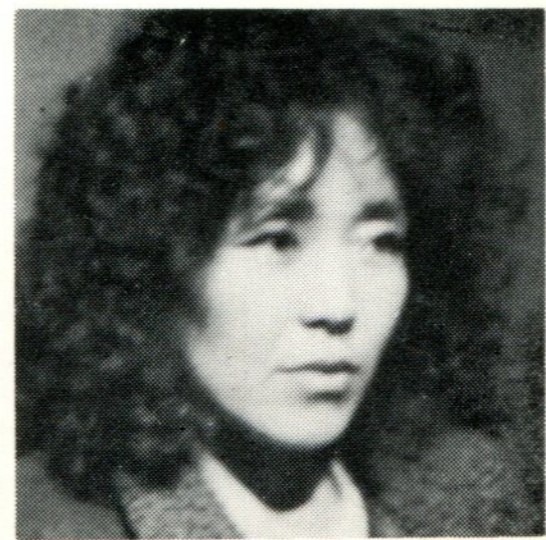
조명 / 권 오 진



효과 / 광 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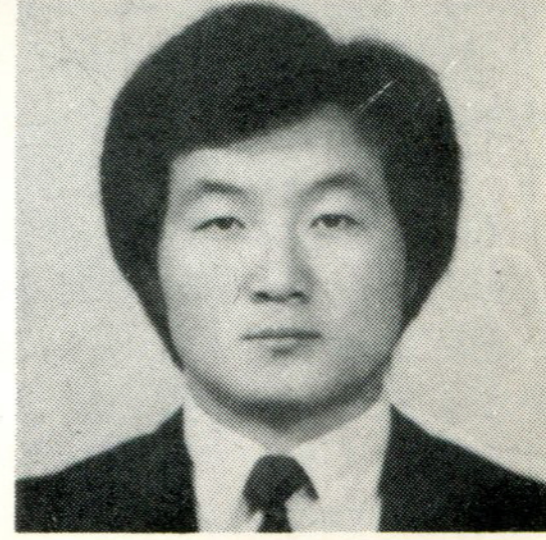
소품 / 박 창 화



의상 / 허 정 숙



분장 / 황 유 리



진행 / 이 용 전



진행 / 김 관 국



진행 / 백 명 숙

## ▶ 작품소개

이 작품은

Arrabul의 초기작에 속하는 작품인 만큼 무대構造에서 확실한 Thema를 추출해 낼 만큼 완성미를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가려하는 方向으로 작품구조를 보완하기로 한다.

먼저 인물의 행위부터 살펴보면 크게 환도와 리스의 관계에서 빚어진 것과 세 사나이로 대별되어진다. 환도와 리스의 기묘한 사랑놀이, 사랑행각은 세 사나이가 딸르로 가는 주제와 서로 대응하고 있다.

세 인물과 환도는 한때 관계를 맺는듯 보이나 곧 소멸되어버린다.

환도와 리스의 사랑행각을 보면 환도와 리스에게는 사랑의 한가지 패턴이 있다. 그것은 항상 한쪽이 強하면 한쪽은 그것에 弱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한쪽이 천박하고 완력적이면 한쪽은 겸허하고 소박해지며 움추려 든다. 환도의 性格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환도의 고독은 그 변도가 극심하다. 마치 철로의 두 선로처럼 영원한 평행선처럼 저 멀리 보이는 한점은 두 사랑을 하나로 묶어줄듯 착각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과 비굴이 뒤섞이며 맹서와 불신이 교착되는 가운데 환도는 점점 고독과 싸우는데 지쳐가고 리스의 존재를 '물체화' (소유물, objet, 희생물...) 시키려 든다.

### 2장

리스는 1장에서 맹서, 사랑의 믿음을 환희속에 확인하나 그중에서는 돌처럼 굳어버린다. 환도는 의로운 자아를 달래고, 교류할 수 있는 따뜻함을 찾아 몸부림치나 리스는 끝내 침묵과 부동으로 환도를 절망에 빠뜨린다. 이때 세 人物의등장이 있고 그 人物들은 순간적으로 환도와 관계를 맺은듯 기대를 주나 그것도 순간 환도의 프로포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잠자리와 같길에 대해 다투기만 하다 우산밑에 한덩이의 짐승처럼 잠들어 버린다. 환도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리스의 주위를 돌며 '말해줘, 제발 말해줘'하며 슬픈 절규를 내 뱉는다.

### 3장 세 사나이의 場面

환도의 고독이 변조하여 제법 버젓한 현학적인 허영심이 된다. 세사나이의 토론에 참가함으로써 人生에 관한 허울좋은 기준을 제시하게 되고, 그것으로 그들에게 同行할 허락을 받는다. 그러나 그 Ticket이 그를 더 나은 상황에 도달시켜 주지는 않는다. 그는 세 사나이에게 리스를 性的유희물로 제공한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도달할 길을 모르는 딸르로 떠난다.

### 4장

뭇 사나이 앞에 제공되었던 리스, 그녀는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마치 분해되는 듯한, 그녀는 고통을 호소하고 환도의 행위를 비판한다, 결국 환도의 도착적인 끝없는 학대에 휘말리고 만다. 리스는 환도의 잔악한 사랑을 이해할수 없고 환도는 극단적인 自我의 충족에만 빠짐으로서 두 人物은 영원히 분리된다. 리스의 주검은 찢어진 북앞에서 한낱쓰레기로서의 관심거리 밖에 되지 못한다. 세 人物이 등장 리스의 주검을 차갑게 진단한다. 등골이 오싹한 dry한 이 scene은 아라발의 극단적인 美學의 世界를 엿보게하는 영원한 Cut다.-

## ▶ 작가소개

아라발은 현대 부조리 극작가 계열에서도 특이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의 출생은 1932년 스페인령 모로코의 메릴라에서였다. 1955년 자유의 파리행을 택할때까지 그의 생활은 억압의 연속이었다.

그는 어려서는 스페인 내전(內戰)의 혼란 속에서 그후 프랑스의 독재정치 아래서 청년시절을 보냈다. 특히 어머니의 고발로 인해 체포 당한 채 사형 집행을 선고받고 행방 불명된 아버지의 일은 평생토록 그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체제에 대한 반항, 인간 해방에 대한 집념이 그의 창작이념에 크게 작용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그의 머리 속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라틴인의 카톨릭 정신도 그에게는 무겁고 기형적인, 어쩌면 하나의 폭력으로 비약해 버린 무시무시한 현실이었다. 거기에다 못생기고 병약하게 자라난 육체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치의 위안도 찾아볼 수 없는 악몽이 아닐수 없었다. 이러한 유년체험은 그의 작품속에서 악몽(惡夢)의 定着이라고 할수 있는 <페아프르 라니크 (theatre Panique- 恐怖演劇)속에 집약된다. 조직과 체제의 이념이 人間과 人間과의 관계를 괴리시키고 드디어 완전히 단절시키게 되는 현실이 부조리한 상황, 그 속에서 피어나는 邪惡하고도 偽善的인 모습들, 宗教와 道德이 추구하는 소위 양심과 善들이 어떤 꽃을 연출하는지를 괴상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추악하고 무서운 현실속에서 살아가는 人間들의 악몽 속에 투영된 영상을 그리는데 집착하고 있다. 그의 作品속에 등장하는 人物들은 도덕도, 선도, 사랑도, 이 세상의 모든 관념에 대해 마치 백지상태인 듯 행동함으로써 詩的 tone과 함께 그로데스크의 미학을 연출해 보인다. 따라서 그들의 世界속에는 「悲劇과 어릿광대 연극, 詩와 속된것, 사랑과 에로티시즘, 세련된 감정과 악취미, 신성과 모독, 숭고한 것과 더러운 것이 同居하는」충격이 속출한다. 이 극과극이 만나는 그로데스크의 世界, 도착된 에로티시즘의 世界는 마치 익살광대의 그것처럼 에로티시즘에 빠져마비되어버린 人間世界를 깨끗이 세척해 줄것이다.

-연구부 note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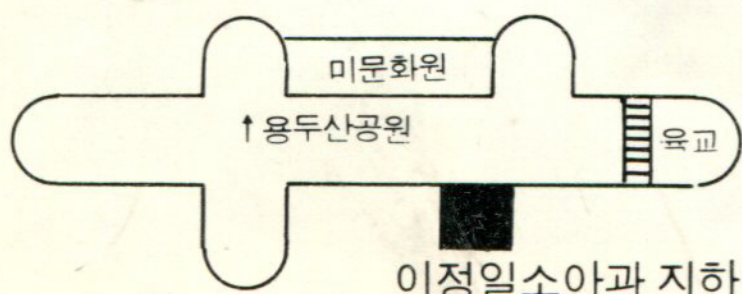
# 墨香茶苑

道와 藝의 室内  
茶와 바둑의 空間

대표 金 德 助

부산시 중구 대청동 2가17

전화 44-3534



## HIGH FASHION



아름다운 여인창조

이니스\*리인

부산시 중구 창선동 2-45호창 B/D 702호

전화 : 23-7601 ~ 2, 22-0407

## ▶ 기획자의 변



기획 / 조문선

노동과 놀이는 시작과 시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한 축에 포함되어 있는 톱니바퀴다. 노동과 놀이는 생명력을 가진 한 개체의 부속물이다. 노동의 내용과 형식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놀이의 그것 또한 정립되지 않는다. 우리는, '놀이'를 통하여 노동의 미를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로 순환, 한 가운데서 회합되어 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여 변혁을 위해서 투쟁하는 인간들을 위해 놀이는 그 일부로분으로서 필히 존재해야 하며 명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의식적이거나, 특정 종류의 놀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무의식 중에 갖고 있다면, 이것이다. 바로 놀이라는 매체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그의 완전한 자유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의 해결 방안은 이러한 연속적인 벽들을 예술이라는 바로 그 "가공적 세계"내에서의 공간과 시간, 과거와 현재, 예술 과정과 현실간의 관계에 대한 현재의 다양하고 두터우며 탄력적인 이해 방안들이 날로 시민의식 속에 점층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다.

## ▶ 공연보

개관 기념공연 때, 두번째 공연때, 항상 여러분 앞에서 다음에 또 모실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역시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여 발자취를 다듬어 놀이의 재미를 되살릴까요.

- 1 회 극단 부두극장 전용소극장 개관 기념공연  
「건축사와 아씨리 황제」 • 부두극장  
F.아라발작 / 이성규 연출 / 우창호 기획
- 2 회 워크샵 공연  
「마지막 테이프」 • 부두극장  
S. 베케트작 / 권오진 연출 / 김하균 기획
- 3 회 개관 1주년 기념공연  
「환도와 리스」  
F.아라발 / 이성규 연출 / 조문선 기획

# 知識人の 必讀書인 民族文學의 旗手 !!

## 創作과 批評影印本 1차: 13권 2차: 10권

- 양심과 용기로서 민중의 현실을 증언하고 민족문화의 새 지평을 모색하는(創批) 15년의 역사를 재현한 대 자료집!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민족문화, 종교, 사상, 예술」등 우리 지식인들의 눈을 밝게 해주는 양심의 글들은 희망찬 미래의 꿈이 담겨져 있으며 발행될때 마다 우리 문단에 새바람을 일으킨 現代文學史의 산 기록!
- 논문, 평론 346편 소설 177편 시 757편, 수상·번역·서평 등 144편의 내용은 국내외 300여명의 석학들이 심혈을 기울려 편집제작한 국내 최초의 유일한 영인본임.

創作과 批評 影印本 釜山支社

☎☎☎ 부산시 중앙동 4가88-3호  
T. 44-3915, 44-2308

사랑과 성에 관한

특별한

두가지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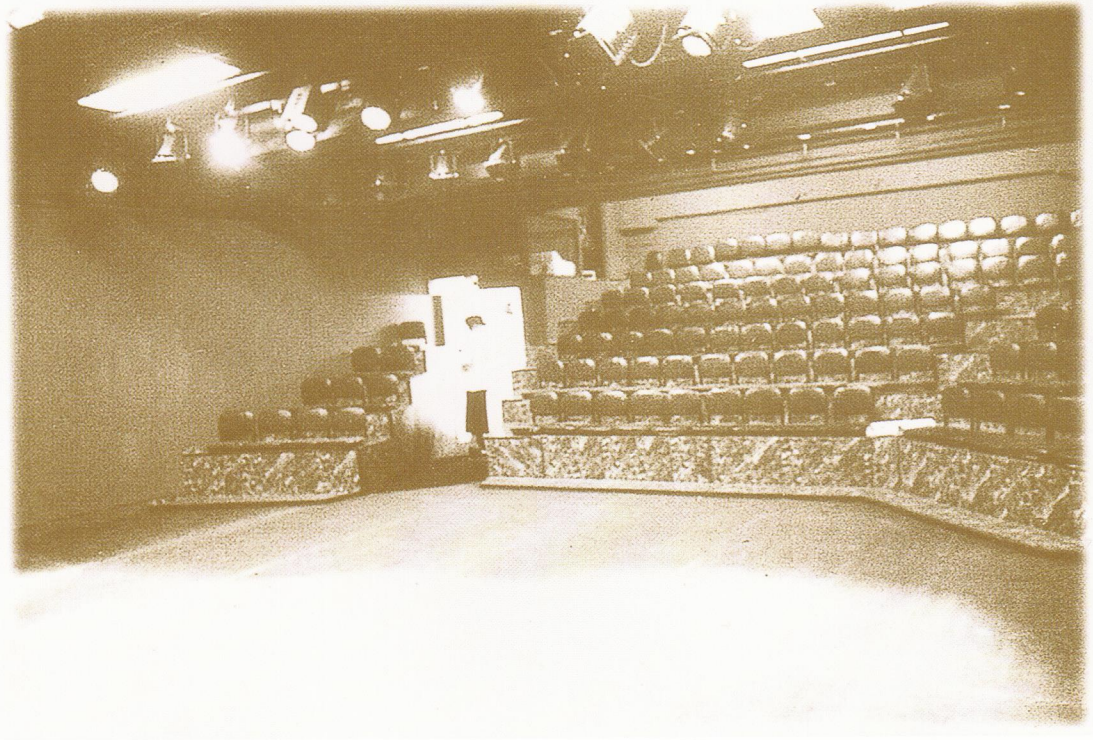
환도와 리스

로리타



연당소극장

극장 전경



연당소극장은 다양한 문화행사는 물론이고  
 각종 공연 및 시민들의 모임·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문화공간입니다.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대관료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
오전	5만원	7만원
오후	5만원	7만원
야간	10만원	12만원
총계	20만원	26만원

**대관 예약 및 문의**

T.556-2232

극장 사용에 관한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오!



# 환도와 리스

F. 아라발 작 / 이성규 연출

공연 일시

1997. 3.10(월) ~ 3.21(금)

평일 7시 30분 토/일 3시, 6시

공연 장소

연당소극장

## 출연진

환도 · 임원석  
 리스 · 박지혜  
 미따로 · 박동민  
 나물 · 김도형  
 또소 · 류영운

## 스텝진

연출 · 이성규  
 조연출/의상 · 김보영  
 기획 · 문지연  
 장치 · 하현관  
 음향 · 정혜경  
 무대미술 · 장은영  
 조명 · 손숙경  
 소품 · 송지연  
 분장 · 손서운  
 사진 · 최민혜  
 팸플렛/홍보 · 김성순

## 작 품 해 설

## 아라발의 환도와 리스

## 환도와 리스

아라발은 인간성 내면의 이원적 요소인 사랑과 증오, 신성과 모독, 미와 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를 다루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의 파괴적, 시적, 에로틱한 힘은 이 이원적 요소의 충돌에서 기인한다. 그는 독특한 어린 시절의 체험을 평생 지니고 사는 작가로서 전쟁과 살육(스페인 내란) 애정과 증오(아버지를 배신한 어머니에 대한 동정과 환멸의 체험), 종교의 위선 등을 뼈저리게 느낀 후 그의 내부 의식을 악몽처럼 작품에 쏟아내고 있다.

그의 공황연극은 아르토의 잔혹연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자연주의 연극을 부정하고, 심리적, 도덕적 테마로부터 탈피하여 격정성과 원시성이라는 새로운 연극적지평으로 나아간다. 그는 어린아이의 시선(단순성, 순진성, 유희성)으로 현실을 투시하는 독특한 관점으로 인간 내면의식의 비논리적 세계(카오스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에서 사랑은 제외되고 단순한 쾌락으로 몰아넣는 오늘날의 에로스를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데 현대의 구제가 있다고 믿는 작가이다.

〈환도와 리스〉는 그의 초기작으로서 완전한 사랑을 꿈꾸나 언제나 서로 만나지 못하는 남과 여의 영원한 비극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서 작품의 구조로 보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환도와 리스의 기묘한 사랑놀이와 세사람의 방관자(미따로, 나물, 토소)의 황당한 논리다툼이 그것이다. 그 두 부분의 이야기는 각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은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서로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나 결국은 서로를 파괴시켜 버리고 마는 환도와 리스의 사랑의 종말이나,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딸르”를 찾아가는 세 사람의 여정 또한 무목적의 목적인 것이다.

작가 아라발은 이 극 속에서 에로티즘을 표현하기 위해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환도는 리스를 처절하리만큼 사랑하나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보상받고 싶어하고, 그리하여 그의 사랑의 표현은 그녀를 마비시켜 쇠사슬로 발을 묶고 수갑을 채우고 채찍으로 때리며 희열을 맛본다. 사랑과 비굴이 뒤섞이며 맹세와 불신이 교차되는 가운데 리스는 이윽고 고통속에 죽고, 그러나 환도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여정이었을 뿐이다. 환도의 성격은 시시각각 변하며, 사랑이라는 전제하에서 그의 고독은 깊어간다. 때때로 그 고독은 변질되기도 하여 가학적 성향을 띤다. 그가 완성된 사랑에 이르고자 하는 것도 그의 소위 현학적 허영 때문인지도 모른다. 환도에게 사랑이란 내재된 성격도착이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리스는 기꺼이 그의 성적 노리개가 되어야 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는 여인을 물체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랑의 한 단면 내지는 본질을 그들의 사랑은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다.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결국은 상대를 파괴시키고야 마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아이러니와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소피스트처럼 황당한 논리의 싸움에 빠져들어 반복, 순환을 되풀이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과 인생의 부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어찌면 시간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죽음 그리고 영원의 문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절망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 남·여의 영원한 비극을 한편의 시처럼...

### 환도와 리스

- 어린이(단순성, 순진성, 유희성)의 시선으로 본 세상과 사랑의 부조리.
- 사랑의 완성을 지향하나 언제나 서로 만나지 못하는 남·여의 영원한 비극을 보편적으로 공감될 수 있도록 한다.
- 대사와 행동 이면에 있는 성적 “에로스”를 이끌어 낸다.
- 부조리한 우리의 인생과 세상에 의미를 끌어내려는 시도를 祭式(삶의 형식)으로 파악한다.
  - : “사랑은 성과 죽음의 祭式이다. 즉 사랑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으려는, 그래서 성을 추구하는 삶의 형식이다. 그러나 그러한 추구는 오히려 죽음을 지향하는 아이러니한 삶의 형식이다.”
- 환도와 리스의 사랑의 주제가 세 사람이 가는 “딸르”의 주제와 복선 구조(이중구조)가 되도록 한다.
  - : 영원한 사랑에 대한 열정은 상대를 소유하기를 원하나 소유는 파괴를 낳고, 목적지 “딸르”는 결국 도달하지 못할 무목적의 목적지임을 느끼게 하여 부조리로 규정된 세계와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
- 그로테스크, 바로크적인 세계(악마적인 미), 카오스의 세계, 아이러니(행동의 전면과 이면의 모순)를 표현한다.
- 한편의 추상 회화가 되어야 하듯이 이 연극은 운율, 리듬을 가진 한편의 시다. (압축, 정수) 그래서 적은 동작, 작은 대사 하나라도 폭발적인 힘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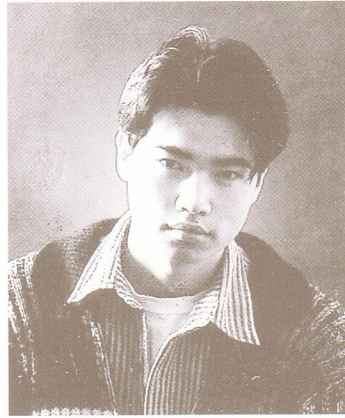
출 연 진

# 환도와 리스

## 환도와 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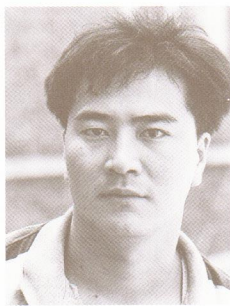
리스/박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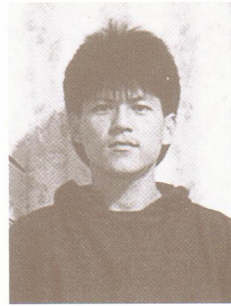
환도/임원석



나물/김도형



미막로/박동민



또소/류영운